

담양군 전역 슬로시티로 만든다

방축·가라실·생오지마을 등 3곳
군, 예비마을로 선정
6개월 컨설팅·교육 후 최종 지정
슬로시티 마을 지속 육성키로

담양군이 창평 삼지내마을 뿐만 아니라 담양 전역을 슬로시티로 만든다. 이를 위해 봉산면 방축마을, 금성면 가라실마을, 가사문학면 생오지마을을 슬로시티 예비 마을로 선정했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창평면 삼지내마을이 2007년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마을로 지정됐다. 지난해 3월 담양군 전역이 슬로시티 마을로 재인증을 받아 담양군은 슬로시티 마을 전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슬로시티 예비마을 공모에 나섰다. 담양군은 예비마을에 응모한 11개 읍·면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브랜드, 주민 참여 의지, 발전 가능성, 슬로시티 지정 요건 등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봉산면 방축마을을 비롯해 금성면 가라실마을, 가사문학면 생오지마을 등 3곳이 예비마을로 선정됐다.

이들 마을은 6개월간 슬로시티 관련 컨설팅 및 교육과정을 거쳐 최종 슬로시티 마을로 지정된다. 이후 담양군 슬로시티 핵심거점인 삼지내마을과 연계해서 슬로시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담양군은 슬로시티 주민협의체 구성, 슬로시티 군민 전문가 양성교육 등 슬로시티 전역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담양 슬로시티 예비마을 심사위원들이 가사문학면 생오지마을을 실시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관계자는 "슬로시티 마을은 세계적 브랜드인 달팽이 로고를 홍보에 사용할 수 있어 마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슬로시티 마을 상호간 연계와 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슬로시티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 시책을 통해 슬로시티 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나주발전 선도프로젝트 성공 위해 전문가들 뭉쳤다

시, 아시아인문재단·희망제작소 등과
과제 발굴·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나주시는 지난 9일 아시아인문재단, 희망제작소, 서울연구원과 나주 정책과제 발굴 및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나주의 신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집단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선 7기 선도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발전, 정책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나주의 미래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상호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호남의 중심도시로서의 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핵심적인 동력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나주시와 아시아인문재단, 희망제작소, 서울연구원은 나주 정책과제 발굴 및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아시아인문재단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다양한 공공정책 생산과 실천을 하는 재단법인이고,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의 후원과 참여로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이다.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서울시 출연 연구재단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이승욱 강진군수 등이 첫 수확한 강진 체리를 시식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초여름의 달콤한 선물 '강진 체리' 맛보세요

본격 출하... 품평회 열여

"달콤한 강진 체리 맛보세요." 강진산 체리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체리연구회는 작전면에 있는 체리농장에서 지난 9일 첫 수확 품평회를 갖고 재배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품평회에는 회원들이 재배한 품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식 평가가 진행됐다. 또 여름철 전정 방법에 대한 현장교육도 함께 추진됐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열대 과일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유망과수 시범 사업으로 체리 재배를 지원해 올해 14곳으로 재배 농가를 확대했으며 일부 농장에서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됐다.

체리는 새콤달콤한 식감과 특유의 향으로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시기에 수확이 편중되고 재배가 어려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강진군은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유공관과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해 안정적인 재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통합브랜드인 '강진품'을 활용한 박스를 새롭게 만들어 고급 과일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강진군은 또 토질에 따라 재배 난이도가 크게 차이는 특성을 감안해 배수가 잘되는 양질의 토양을 선택하고 난립해 있는 체리 묘목 시장에서 좋은 묘목을 선별하도록 교육하는 등 연구회와 함께 강진산 체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은 일조량이 많고 기후가 따뜻해 체리의 맛이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배 농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판매나 직거래를 통해 적극적으로 판매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잔디 메카' 장성군, 병충해 관리법 책으로 발간

진단·방제법 등 수록...농가 교육 활용

"명품 잔디" 생산지로 유명한 장성군이 병충해 방지 노하우를 담은 책자(시진)를 10일 발간했다.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의 잔디 생산지다. 올해 1339농가에서 1352ha를 재배하고 있다.

장성군이 제작한 '잔디의 주요 병충해 및 관리 방법'에는 재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잔디 병해충에 대한 진단 방법과 방제 과정, 사용 가능한 약제 목록 등이 수록돼 있다. 감수는 김진철 전남대 교수가 맡았다.

책자에는 6월 이후 주의해야 할 주요 잔디병으로 잔디 도열병을 소개하고 있다. 이 병에 걸린 잔디에는 잎이나 줄기에 원형 또는 타원형의 옅은 회색 병반이 생긴다.

예방법은 질소비료 등 제초제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방제를 위해서는 헤리티지 입상



수화제, 배너 유제, 센티널 입상수화제 등을 사용하면 된다.

양원길 장성군 산림편백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책자를 농가 교육과 영농지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세계 최고 품질의 장성 잔디 재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